

2010. 5. 3 제238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5. 3 제238호

산업·경제

1.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영국 엑서터市)
2. 창업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건강·복지

3. 저소득층 주택정보센터 운영 (뉴욕)
4. 노약자와 장애인 거주주택 개선 지원 (영국 브리스틀市)
5. '어린이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는 도시' 조성 추진 (오사카府)
6. 유비쿼터스 ID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이동 안내 실험 (도쿄)

행정·재정

7. 도시정보 부서 조정·통합으로 정보시스템 현대화 (뉴욕)
8. 무료 공공데이터 블로그 성공적으로 운영 (런던)

도시환경

9. 대기 질 향상전략 수립 (런던)
 10. '무배출 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네트워크 전략 수립 (런던)
 11.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 운영 (일본)
-

산 업 · 경 제

1.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젝트 추진 (영국 엑서터市)

○ 영국 엑서터市는 계속 늘어나는 사회적 기업을 앞으로 1년 동안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市 경제·관광국은 대학, 기업과 함께 마련한 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기존 정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임.
 - 市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자 네트워크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수익을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은행업, 보험업, 농업, 수공업, 광고 서비스, 의료 및 사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소 규모로 운영됨. 사회적 기업은 다른 유형의 기업과 비교해 여성과 18~24세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더 효과적임.
 - 현재 영국에는 6만 2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약 80만 명을 고용하고 240억 파운드(약 40조 9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함. 엑서터市가 있는 잉글랜드 서남부 지역에는 사회적 통합과 낙후지역 재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5500여 개 있음.

(<http://apps02.exeter.gov.uk/dnRSS/ShowMediaReleases.aspx?ID=729>)

2. 창업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 베를린시는 베를린 상공회의소, 기능장협회, 투자은행, 창업 지원기관 등 ‘베를린 창업 네트워크’에 속한 70여 개의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베를린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베를린에서 창업을’을 개설함.

- 시는 최근 6년간 사업자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창업도시 베를린’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왔음. 그런데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정보를 찾는 것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 이번에 개설된 포털사이트는 자치구나 기관별로 운영하는 창업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통합해 소개하고 있음. 창업 희망자는 이 포털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행사 일정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이 사이트는 협력기관별 특별 서비스도 안내함. 베를린 상공회의소는 창업절차를 도와주고 있고 기능장협회는 기술자와 기능인이 개업할 때 부딪치는 문제를 인터넷상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은행은 창업을 위한 재정 상담과 사업계획 수립, 공모전 참가, 기술과 창의성 개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4/20/292676/index.html)

건 강 · 복 지

3. 저소득층 주택정보센터 운영 (뉴욕)

○ 뉴욕시는 시민,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료 수준과 공공주택 공급 현황, 긴급지원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택 문제를 연구하는 기구를 운영함.

- 저소득층 주택정보센터는 아파트 임대정보는 물론 주택 취득과 관리 정보 등을 제공함. 특히 저소득층 아파트 현황, 공공주택 입주 정보, 상수도 및 냉난방 시스템 문제, 주택과 관련된 법률 정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 정보 등을 인터넷과 전화로 제공함.

- 주택임대료 안내위원회는 임대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임대료 정보, 공실 현황, 주택 관련 조사 결과 등을 제공함.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지난 40년간 뉴욕 시내 주택 공실률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한 임대료 수준을 도출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함.

(www.housingnyc.com/html/research/cresearch.html)

(www.nyc.gov/html/housinginfo/html/home/home.shtml)

4. 노약자와 장애인 거주주택 개선 지원 (영국 브리스틀시)

○ 영국 브리스틀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주는 등 노약자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주요 내용은 ① 계단과 층간 리프트 설치, ② 경사면 난간 확충, ③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출입문 확대, ④ 장애인을 위한 부엌과 화장실 개조, ⑤ 난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시민이 시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는 전문치료사를 보내 노약자와 장애인 주거환경을 평가함. 전문 치료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주택 개선팀에 주택 개선을 추천하고 주택개선팀에서는 개선책을 검토해 시행함.

-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보조금, 자유재량 보조금 프로그램 등 2가지 유형이 있음.
 - 필수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주택 소유주나 세입자 등)이 주택 개선 공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치료사와 주택 조사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동거인의 상황과 재정 상태를 확인함. 최소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개선공사를 주관하는 계약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 자유재량 보조금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인시설 보조금과 연계하여 주택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주택 개선비용이 장애인시설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장애인시설 보조금 기준에 없는 사항이거나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됨. 보조금 지급 여부는 市 주택·사회서비스국이 결정함.

(www.bristol.gov.uk/ccm/content/Housing/Private-Housing/housing-adaptations-for-older-or-disabled-people.en)

균등한 주택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주택정책 시행 (뉴욕)

- 뉴욕시는 세입자나 주택 취득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정주택 정책(Fair Housing Non-Discrimination Policy)을 시행함. 市는 주택난 및 주택과 관련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개 국어로 된 안내문도 배포함. 이 정책은 1968년 공정주택법과 1988년 공정주택법 수정조항, 기타 인권법 등에 기초한 것임.
- 공정주택정책의 핵심은 세입자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민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가족 구성 형태, 결혼 여부, 직업, 장애, 스토킹 피해 경험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것임. 차별을 받았을 경우 市나 市 인권위원회, 뉴욕주 인권국,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에 신고할 수 있음.

(www.nyc.gov/html/nycha/downloads/pdf/fair-housing-non-discrimination-policy.pdf)

5. '어린이의 개성과 재능을 계발하는 도시' 조성 추진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2009년 3월 '건강한 오사카' 전략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살아가는 힘 강화' 사업을 세부 과제로 추진함.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어린이가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기업 등 사회 전체가 어린이의 학력과 인성 등을 육성하는 것임.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임.

- 이 전략에서는 사업 달성목표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건강 업(Up) 지표'로 만들어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초·중학생) 비율: 초등학생 89.1%, 중학생 90.9%(2008년) → 95%(2011년)
- 장래 꿈이나 목표를 가진 어린이 비율: 초등학생 82.3%, 중학생 67.4%(2008년) → 85%(2011년)
-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비율: 초등학생 67.5%, 중학생 55.6%(2008년) → 80%(2011년)
- 학력평가시험 비용비율: 과목별 5~13.9%(2008년) → 전국 평균 이하(2011년)
- 이 사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수: 30개(2008년) → 60개(2011년)

- 구체적인 시책으로 ① 살아가는 힘의 기초환경 조성, ② 어린이의 개성과 재능 계발, ③ 교육기능을 강화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이 있음.

- 기초환경 조성사업에서는 출산 후 양육자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양육자 비율을 2009년 50%에서 2011년 40%로 낮춤. 또한 취학 전 아동이 기본 생활습관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정예 학습이나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함.
- 어린이의 개성과 재능 계발사업에서는 방학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학습(여름 체험학교 등)이나 교육을 실시하여 3년간 참가 어린이 4500명 중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대답하는 어린이 비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임.

-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사업에서는 초·중학교에 전직 교장을 연 4회 파견하고 시범학교에서는 대학교수를 활용하여 현직 교원의 수업계획과 수업내용을 검토 하도록 하며, 성공사례는 책자로 만들어 다른 학교에 소개함. 교육기능을 강화 하거나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 목표치는 50개사와 300개 단체임.

(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cmsfiles/contents/0000033/33073/12kodomo.pdf)

(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050635.html#genki)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까지 줄일 계획 (런던)

- 런던시는 '기후변화 전략'(Climate Change Strategy)의 일환으로 런던을 유럽에서 가장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시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① 친환경 발전소 확충, ② 쓰레기 매립 지양 및 재활용 촉진, ③ 쓰레기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④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 ⑤ 주택 열지도 작성 등의 정책을 검토 중임.

- 이는 유럽에서 가장 푸른 도시로 선정된 코펜하겐이 추진하는 2025년 '무탄소 배출도시' 조성계획을 적극 반영한 것임. 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과 자동차를 대상으로도 획기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how-london-could-follow-footsteps-europe%E2%80%99s-greenest-city)

6. 유비쿼터스 ID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이동 안내 실험 (도쿄)

○ 도쿄도는 국토교통성과 연계하여 최첨단 유비쿼터스 ID 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실험을 실시함. 이 실험의 목적은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임. 최첨단 유비쿼터스 ID 기술은 장소나 개별 사물에 고유한 식별번호(U-code)를 부여해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기술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물이 기본적으로 전자태그를 내장함.

- 기존 유비쿼터스 사업은 주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특히 일본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마음껏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외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용자는 시각·청각 정보를 모두 활용함.

· 都는 일찍부터 우에노 공원과 우에노 동물원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해왔으며, 2008년에는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청 전망대 관광안내 서비스를 실시함.

- 2010년에는 ‘도쿄 유비쿼터스 계획: 긴자·신주쿠’를 수립하고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실험함. 실험 지역은 긴자 윤초메(銀座 四丁目)로 2010년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함. 이 지역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할당된 무선·적외선 마커, IC 태그가 설치됨.

· 실험 참가자는 통상적인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과 흰 지팡이를 활용하여 이동 하되 이동 시 천장이나 도로에 설치된 무선·적외선 마커로부터 음성 정보(방향, 거리, 계단의 단수, 보도의 유무 등)를 제공받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3/20k38200.htm)

(www.tokyo-ubinavi.jp/pdf/TochoGuide.pdf)

(www.tokyo-ubinavi.jp/jp/tokyo/2010.html)

행정 · 재정

7. 도시정보 부서 조정·통합으로 정보시스템 현대화 (뉴욕)

- 뉴욕시는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도시정보 관련 부서나 조직을 조정·통합하여 도시정보 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임. 시 조직에 대한 보고서 30-Day Agency Review에 따르면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조직이 40개가 넘으며 그 중 일부는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중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는 311 센터 내의 웹·뉴미디어 운영부서를 도시정보를 관리하는 시 부서에 통합하기로 결정함. 2010년 3월 다양한 통신사와 함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박람회인 빅 앱스(Big Apps)를 개최하고 통합적인 정보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함. 조직 통합뿐 아니라 정보 관리 표준화방안도 시행하여 각각의 정보를 통일된 정보관리 환경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시는 ① 정보통신 운영비용 절감, ②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③ 정보보안 강화 등 도시정보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주요 정책목표도 제시함. 또한 시는 정보시스템 현대화로 향후 5년에 걸쳐 1억 달러(약 11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www.nycbigapps.com)

(www.nyc.gov/html/doitt/html/home/home.shtml)

8. 무료 공공데이터 블로그 성공적으로 운영 (런던)

- 런던시는 2010년 1월부터 런던 관련 도시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런던 데이터스토어’(London Datastore) 블로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힘. 이 블로그에서는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관, 기업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시는 더욱 투명하고 개방된 도시정부를 만들려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런던개발공사, 교통공사 등도 각 기관의 정보를 개방하도록 유도함.

- 공공데이터 블로그가 시민과 기관, 기업 등이 좀 더 도시정부를 이해하고 도시정부 또한 도시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상호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市는 밝힘. 그 예로 지하철역 접근성에 관한 정보는 아이폰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장애인에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市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홍보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간 데이터의 가능성’(Possibilities of Real Time Data)이란 행사를 2010년 4월에 개최함.

(www.london.gov.uk/blog/endless-possibilities-free-data)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해 차량 연료로 사용 (일본)

- 일본 신닛테츠(新日鐵) 엔지니어링은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설비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규모 사업장 등에 판매할 계획임. 바이오 에탄올은 차량 등의 연료 첨가제로 사용되며 휘발유만 사용할 때보다 탄소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
- 이 생산설비를 활용하면 1일 약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약 500리터의 에탄올을 만들고 하루 6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기존 쓰레기 처리 시설보다 30~40% 줄임. 판매가격은 10억~20억 엔(약 120억~240억 원)임.

(요미우리신문, 2010. 4. 19)

(journal.mycom.co.jp/news/2010/04/20/038/index.html)

도 시 환 경

9. 대기 질 향상전략 수립 (런던)

○ 런던시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 질 향상전략’(Air Quality Strategy)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임. 시는 대기오염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힘.

- 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① 혼잡통행료와 ‘런던 저배출 지역’(London Low Emission Zone) 확대 운영, ②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는 자동차 클럽(Car Clubs) 운영, ③ 저배출 청정버스 도입, ④ 저배출 택시 전략 등을 제시함.

- 시는 대기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① 택시 수명 제한, ② 전기차 이용 유도, ③ 친환경운전 교육 실시, ④ 오래된 버스 재정비, ⑤ 대기 질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선목표 설정, ⑥ 재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시스템을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⑦ 주택과 업무용 빌딩을 개조해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을 추진함.

· 시는 쇼핑할 때 차량 이용하지 않기, 가정 내 절전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습관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함.

(www.london.gov.uk/priorities/environment/vision-strategy/air-quality)

10. ‘무배출 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네트워크 전략 수립 (런던)

○ 런던시는 런던을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2012년까지 ‘수소네트워크’(Hydrogen Network)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 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런던 수소 실행계획’(London Hydrogen Action Plan)을 2010년 3월 마련함.

- 市와 자치구, 토지 소유주,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런던 수소파트너십’(London Hydrogen Partnership)은 최소 6개의 수소충전소를 2012년까지 설치함. 이 중 하나는 런던 동부지역에 건설 중이며 2010년에 문을 옴. 市는 앞으로 수소파트너십을 수소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임.
- 市는 2012년까지 최소 150대의 수소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여기에는 봉고차, 택시, 오토바이, 화물차 등도 포함됨. 이 중 50대는 런던개발청, 교통국, 방재국, 치안국 등 市 조직과 산하기관이 시범적으로 도입함. 수소파트너십은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서도 수소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市는 수소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런던의 대기 질을 향상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london%E2%80%99s-%E2%80%99hydrogen-network%E2%80%99-plans-unveiled)

‘문화·창조 경제 이니셔티브’ 포털사이트 개설 (독일)

- 독일 연방정부는 2007년 문화·창조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창조 경제 이니셔티브’를 구성함. 이는 문화·창조 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개선하며 창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0년 3월 연방 경제기술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문화·창조 경제 이니셔티브 포털사이트 (www.kultur-kreativ-wirtschaft.de)를 개설함. 이 사이트는 이 기관의 목적과 정책을 소개하고 창업 희망자나 청년사업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36476.html)

(www.kultur-kreativ-wirtschaft.de/KuK/Navigation/root.html)

11. 주택판 에코포인트 제도 운영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친환경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에코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함. 에코포인트 제도는 일본에서 이미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제도임.
 - 주택 신축 시에는 외벽이나 창의 단열성을 높이고 전력 소비량이 적은 냉난방과 급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개축의 경우 이중창을 설치하거나 마루나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사가 대상이 되며 개축 증명서나 현장사진을 제출해야 함.
 -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한 주택을 대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사도 시행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포인트도 지급함. 1포인트는 1엔(약 12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음. 신축의 경우 1호당 최대 30만 엔(약 360만 원), 개축은 단열창 10개를 설치할 경우 15만 엔(약 18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함.
 - 2010년 3월 한 달간 신축 163건, 개축 3527건이 접수되었고 심사 결과 신축 10건, 개축 337건에 대해 약 1628만 엔(약 1억 950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됨.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창의 단열공사가 전체의 79%를 차지함. 지급된 포인트의 79%는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교환되었고 20%는 다른 개축 공사 대금으로 충당됨. 포인트는 2010년 말까지 시행된 공사에만 지급됨.
 - 국토교통성은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을 의무화할 계획임. 10~20%만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10년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강력한 규제는 새로운 투자를 부르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의 경우 악질 사업자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고 이는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 불필요하거나 하자 있는 개축공사는 에코포인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됨.

- 국토교통성은 주택 개축 하자 보험을 신설하여 시공업체가 부실공사를 하거나 파산할 경우 소비자에게 공사비용을 최대 1000만 엔(약 1억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음. 소비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의뢰하면 완공 후 보험회사가 건축사를 파견하여 공사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험증서를 교부함.

(요미우리신문, 2010. 4. 17)

(마이니치신문, 2010. 3. 20)

(allabout.co.jp/r_house/gc/43143)